

남성숙 칼럼



본사 사장

지난 주말은 참 행복했다. 지난달 27일 토요일 호텔 커피숍을 갔는데 자리가 없었다. 좌석을 짝 매운 이들은 외국인이거나 젊은이들이었다. 광주 예전 볼 수 없는 이색 장면. 서울이나 부산을 가면 늘 볼 수 있는 그 장면, 관광객들로 북적였던 주말이었다.

K팝그룹 방탄소년단(BTS)을 보기 위해 광주로 몰려든 젊은이들, 광주 아시아문화중도시가 꿈꾸었던 광경이다. 지난 28일 광주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2019 광주 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기원-SB S 슈퍼콘서트' 무대에 방탄소년단이 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외국뿐 아니라 우리 국민이 광주월드컵경기장에 입장하고 싶어 안달 났었다.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기원 슈퍼콘서트를 통해 광주에 에너지를 집결시킨 주역 방탄소년단은 현재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3위를 기록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11개월도 안 돼 빌보드 200 정상에 세번째 오르는 신기록을 쓰고 있다. 박히트엔터테인먼트 공식 유튜브에 올라온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뮤비는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2억 2천920만 뷰를 넘었다. '홀로하다'는 찬사를 넘어 '위대하다'는 생각이 든다. 방탄소년단을 보기 위해 해외 K팝 팬들이 광주월드

컵경기장 입구에 줄서 있는 모습을 봤다는 광주 한 문화관계자는 필자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광주가 꿈꾸어왔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다'고 말했다.

한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큰 그림을 그릴 때, 이런 모습을 상상하며, 광주시민은 '문화로 밥 먹고 사는 도시'를 계획했다. 그러나 방탄소년단을 기다리며 들떠있었던 지난주 25일, 70여개가 넘는 광주의 시민사회단체와 문화단체는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상화 시민연대는 표류하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사업에 대해 문제인 정부에 작심하고 쓴 소리를 했다.

필자는 이들의 성명문을 읽으면서 많은 자괴감이 들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할 당시, 10년 전, 5년 전에 정부에 대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얘기들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한 오늘까지 반복해서 또 해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다.

이들은 성명문을 읽으면서 우선, 지난 대선시기에 문제인 대통령이 대표적인 적폐 사례로 조성사업을 지적하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시대 선언 및 한국문화기술(C T)연구원 공약을 발표하고 정권을 교체하면 조성사업의 정상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환기시켰다. 하지만 '문제인정부에서부터 우리의 기대는 산산이 무너졌으며, 조성사업의 현 주소는 국책사업이라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의 70여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 문화단체가 모두 참여했다면, 광주시민의 의견이나 진배없다. '광주 시민과 시민사회가 민주화의 성지' 광주의 심장인 옛 전남도청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을 동의한 것은, 80년 5월의 송고한 가치와 대응정신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공존·상생하여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변모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다. 하지만 문제인 정부는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을 핑계로 조성사업의 정상화와 문화전당 활성화를 위한 산적한 과제와 현안은 후순위로 방치하고, 도시 전체에서 수행되어야 할 조성사업은 문화전당에 매몰되는 파멸을 거듭하고 있다. 조성사업의 컨트롤타워이자 실무를 총괄해야 하는 7기 조성위원회와 추진단은 아무런 권한과 책임도 없이 존재감을 상실한지 오래이며, 문화발전소로서의 기능과 역할은 고사하고 불통의 지하병커로 전락한 문화전당, 지역의 자산과 문화예술인을 배제하려는 아시아문화원의 행태가 그 반증(反證)이다. 작금의 조성사업은 총체적인 위기이자 난파 상태에 이르렀고 사실상 대선 공약의 파기라는 것이 시민사회와 문화예술단체의 증언이다.

특히 "문제인 정부에게 조성사업은 종합계획 수정계획(2018-2023년)의 인쇄물에 갇힌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며 계륜(鵝肋)에 다를 아니다. 오죽하면 조성사업의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사람이 있는 문화비전 2030' 2018년, 2019년 업무계획에 언급도 되지 않았겠는가" 따져 물었다. 이어 "조성사업

이 당초의 목적대로 문화국가의 이미지 제고, 문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대한민국과 광주의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과 소수의 전문가 중심에서 시민이 주체가 되고 정부·광주시·시민사회와의 협치를 통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의 책임과 의지, 법 개정·안정적인 재원 투입·조성사업 추진 체계의 전면적인 혁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조성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문제인 정부의 인식의 전환과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리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시대 선언 및 한국문화기술(C T)연구원 광주설립 공약의 구체적인 이행 ▲시민이 주체가 되고 협치를 기반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성사업의 추진체계 전면 혁신 ▲대통령 직속으로(가칭)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정상화를 위한 민관 위원회(T/F) 즉각 구성 등을 요구했다.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이유는 이 주장이 너무나 절박하고 옳기 때문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광주시는 방탄소년단 같은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제적인 효과와 성장가능성을 이미 경험하고 있어야 한다. 관광객이 넘쳐나야 한다.

만약엔 정부에서 시작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 문제인 정부에서 꼭 완성되어야 한다. 부디, 응답하기 바란다.

지적주권 회복 및 토지이용가치를 높이는 지적재조사

고 있다. 이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지적정보로 구축하여 공간정보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자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변환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서 지난해 말까지 우리 시 전체 20만9천190필지 중 73%인 15만2천76필지를 변환 완료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세계측지계 변환을 조기 완료할 계획이다.

2020년에는 지적소관청 단위로 변환 후 현재 사용중인 지적공부를 병행 사용하여 변환성과를 검증하여 부합되지 않는 지역은 별도의 공통점을 선정하거나 평균편차 조정 방법 등으로 변환 및 재검증하여 안정적인 측량기준으로 자리 잡도록 한 후에 향후 세계측지계를 전면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하여 바로잡고 종이 지적도의 디지털화로 국토의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시민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

조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는 1910년 당시 낙후된 측량기술과 장비로 작성되었을 뿐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종이 지적의 마모와 한국전쟁 당시 측량기준점의 상실, 급속한 개발로 인한 지형변화 등으로 우리 국토의 모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지적도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의 당위성은 다음 측면에서 좀 더 살펴 볼 수 있겠다.

첫째, 현재 지적도의 축척은 다양성(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6·25전쟁 시 망실된 측량기준점의 복구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측량 원점의 다양성, 지적도면 재작성 과정의 제도오차 등에 따라 현행 지적제도에서는 토지경계 정보의 정확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축척 통일에 따른 경계 정보의 정확성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지적민원

및 이웃간의 토지경계분쟁 발생이 감소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I T 강국이다. 올해 4월에 세계최초로 5세대(5G) 통신 서비스를 상용화하면서 다시 한 번 IT 강국임을 과시했다. 그러나 지금의 아날로그 지적정보로는 전자정부와 IT강국에 걸맞는 국가 경쟁력과 품격을 높일 수 없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아날로그 지적을 디지털적으로 전환·구축하여 국가공간정보 품격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제가 한국을 강제병합한 지 100년이 지난 지금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지적제도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지적재조사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와 합의가 필수적이다. 우리 시가 지적재조사사업을 조기에 완수하여 토지행정의 모범적인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광주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기대한다.

현장칼럼



이 수 원

광주시 토지정보과장

'지적'은 토지 및 토지소유권에 대한 호적으로 토지와 관련한 조세 및 개인 재산권 보호와 국토개발의 근간이 되는 기초 자료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적공부는 1910년 일제의 토지수탈과 조세징수를 위한 토지조사사업 당시 종이로 작성된 것이다. 수축과 이완에 따른 변형이라는 종이 지적도의 태생적 한계로 도면과 현실의 오차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토지에 대해 1910년 토지조사 사업을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지적측지계(일본의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일본지형에 적합하도록 설정된 동경측지계)를 기준으로 작성된 기존의 지적공부를 지금까지 사용하

가정의 달 5월 '학대의 그늘-우리 가정을 돌아보자'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성년의 날 등 다양한 행사가 모여 있는 가정의 달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가족과 뜻깊은 시간을 보내는 축제의 달이기도 하다.

하지만 모든 가정이 따뜻하고 의미 있는 달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최근 몇 년간 가정폭력에 대해 정부와 경찰, 시민사회단체 등이 적극 대응하고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고 이를 신고하고 치유하려는 사회적 분위기는 정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가정과 시설 등에서 고령의 노약자나 어린 아이들에게 육체적, 정서적 학대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방치되고 있다.

학대라고 하면 흔히 때리거나 굶김 등 유형적 행사에 의한 폭력이나 가혹행위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정서적 학대, 방임도 더 큰 상처와 후유증을 가져 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오늘은 아동학대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이들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전국아동학대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가 2014년 1만건을 넘어서 2018년에는 그 두배인 2만4천64건으로

두배를 넘어서고 있고 아동학대 행위는 대부분 가정과 부모에 의해서 발생했고 피해아동의 70% 이상이 최소 일주일에서 한달이상 혹은 그보다 자주 학대를 받았다고 한다.

부모입장에서 바른 훈육방법이고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마땅히 부모가 해야 하는 선의의 행동이라고 생각하면서 "누구 반만이라도 해봐,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차라리 나가 죽어라" 등 아이들을 위촉시키고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말을 하지 않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또한 한 아이만 편애하거나 아이들 앞에서의 부부싸움, 아이들을 동행한 어른들만의 회식, 집에서 아이들 앞에서 술이나 담배를 피우며 애정표현을 하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등도 아이들 입장에서 학대일 수도 있다.

이렇듯 학대는 우리 가정과 사회에 일상처럼 지나치고 방치되고 있다. 우리들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부모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변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철저히 하고 학교나 민간단체, 공공기관, 국가 등이 하나로 연계 개선했다면 내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의 일, 남의 가정사라고 하여 우리 이웃에 대해 무관심한 사회가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아동학대는 계속될 것이며 불안한 사회가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인식을 조금만 바꾸어 내 주위, 내 이웃을 돌아본다면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김한철·함평경찰서

社 說

박양우 장관, 전당장·CT연구원 서둘러주길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만남을 갖고 광주시 문화분야 협안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눠 주목된다.

이 자리에서 이 부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실효성 제고,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국책기관 광주 설립, 국립광주국악원 유치 등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사업은 광주가 명실상부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필수 요소들이다.

현재 아시아문화전당장은 3년째 공석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조직통합 문제까지 맞물려 직무대리체제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부시장은 문화전당 활성화를 위해 전당장 직무대리를 1급 전당장으로 조속히 임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5대 문화권 사업 중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관련 지자체 사업에 대해 국비지원 비율을 상향(50→70%)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문화콘텐츠 핵심기술 개발과 융합연구를 통해 문화콘텐츠사업의 역량을 높이는 CT연구원 광주 설립도 절실한 상황이다. CT연구

원은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첨단 융 복합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확대와 함께 콘텐츠 창작 관련 핵심기술 개발 및 지식정보의 거점이 될 전망이다.

CT연구원은 문제인 대통령 공약사항일 뿐 아니라 이용섭 광주시장도 "2019년 10대 핵심시책"에서 CT연구원의 광주 유치를 발표한 바 있다.

문화전당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문화발전소 및 문화향유공간으로서 전당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당장이 하루빨리 임명돼 광주만의 색깔을 담아내는 노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통합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예산을 끌어오고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CT연구원이 설립돼야만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의 광주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박 장관은 2년간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로 활동한 바 있어 광주 문화중심도시 발전방향과 현안을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고 있다.

박 장관은 전당장 임명과 CT연구원 광주 설립을 서둘러 추진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활성화에 협조주길 바란다.

광주관광공사 설립 추진 '광역화' 필요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하고 갈수록 선택의 폭이 넓어진 관광객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방법으로 접촉을 시도하고, 체계적인 표적시장 선정과 이에 대한 관광마케팅 활동이 필요하다.

아울러 관광 상품의 차별적 가치 제공을 위해서는 시장지향적인 관광 상품의 개발과 개발된 관광 상품을 어떻게 알리고 유인할 것인가와 관련된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역내에 산재되어 있는 관광자원간 효율적인 관광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신규 관광지 및 관광 상품 개발의 조정, 통합적인 판매 및 촉진 활동 등을 지자체 차원에서 담당할 전문적인 조직 설립의 필요성이 논의돼야 하는 시점에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시점에 전남도에 이어 광주시가 관광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광주 관광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가정관광공사 설립을 추진기로 해 주목된다.

현재 광주관광 전담기구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이 진행 중이다. 이번 용역에서 새로운 관광진흥 전담기구의 설립 타당성을 조사하

고 사업 범위, 조직과 인력 수요, 적정 자본금(출연금) 규모 등을 분석하게 된다.

광주시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가정관광공사를 신설하거나 현재 있는 광주관광컨벤션뷰로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전남도 역시 김영록 지사의 공약사업이었던 가정관광재단 설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당초 관광공사를 설립하려 했으나 공사는 자체 수익 사업이 있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 수익 창출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담기구인 재단 설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용역을 의뢰했고, 이달 말께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된다. 광주와 전남지역은 각각 도시와 경관 관광 등으로 성격이 다른 만큼 시·도간 협력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그에 대한 방안으로 광주시와 전남도 차원의 공동마케팅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광주전남연구원처럼 '범위의 경제' 효과를 노려 '광역화'된 관광공사 설립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골치 아픈 군공항 이전 문제에도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픽 뉴스

암 사망자 매년 증가세…남성 폐·간암, 여성 폐·유방암 많아

암 사망자가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으로 이어진 암은 폐, 간, 위, 췌장, 결장, 유방 등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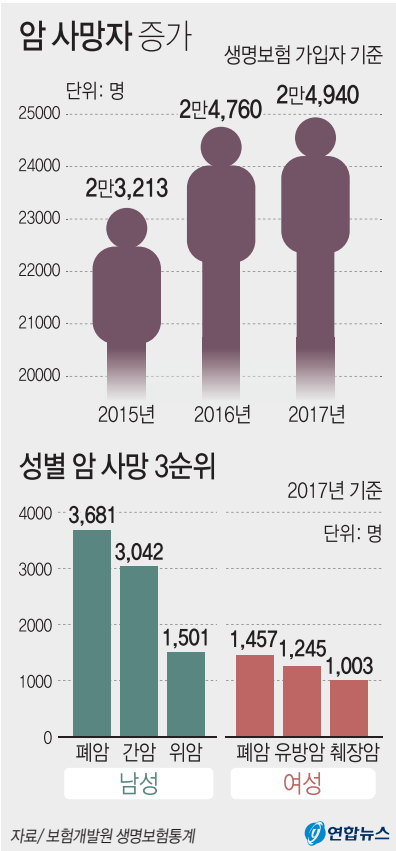
1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암으로 사망한 생명보험 가입자는 2008년 1만8천144명에서 2010년 1만9천560명, 2012년 2만1천179명, 2015년 2만3천213명, 2017년 2만4천940명 등으로 늘었다.

이들에게 발생한 암은 2017년 기준으로 폐암(5천138명)이 가장 많았다. 간암(4천27명), 위암(2천385명), 췌장암(2천54명), 결장암(1천314명), 유방암(1천260명)이 뒤를 이었다.

남성 암 사망자 1만4천668명은 폐암(3천681명), 간암(3천42명), 위암(1천501명), 췌장암(1천51명), 결장암(671명), 직장암(454명), 식도암(424명) 순이다.

여성 암 사망자 1만272명은 폐암(1천457명), 유방암(1천254명), 췌장암(1천3명), 간암(985명), 위암(884명), 결장암(643명), 난소암(540명) 순이다.

남녀 모두 50~70대에 암 사망자가 집중적으로 분포했다. 2015~2017년 누적 기준으로 남성은 60대, 여성은 50대가 가장 많았다. 60대 남성 암 사망자들은 폐암, 간암, 위암, 췌장암, 결장암이 주요 사인이었다. 50대 여성 암 사망자들은 유방암, 폐암, 간암, 위암, 췌장암 순이다. 암 사망자 수는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가면서 급증했다. 40대 남성은 간암, 위암, 폐암, 췌장암, 결장암, 40대 여성은 유방암, 위암, 폐암, 난소암, 결장암 순이다. /연합뉴스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南成淑 주필 朴俊洙 편집국장 吳星洙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차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국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체육부 650-2065	광고문의국 650-2072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사진부 650-2080	경영지원국 650-2010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논설실 650-2006	기획사업국 650-2079	입무국 650-2019
	문화부 650-2067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刊)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